

고교생 최초 ACL 데뷔 정상빈 “음바페처럼 골 넣고파” 밝혀

지난 22일 광저우헝다전서 경기 후반 깜짝 데뷔
수원 U-18팀 매탄고 출신...올해 준프로 계약해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고교생’ 신인 정상빈(18)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무대에서 칼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처럼 골을 넣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상빈은 지난 22일 카타르 도하의 칼리안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치른 광저우헝다(중국)와의 2020 ACL 조별리그 G조 3차전에서 후반 교체로 나와 약 6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고교생 K리거가 ACL 경기에 출전한 건 정상빈이 처음이다.

수원 18세 이하(U-18)팀 매탄고 3학년인 정상빈은 올해 준프로 계약을 맺고 팀에 합류한 공격수다.

수원은 중국 슈퍼리그 강호이자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하나인 광저우헝다와 0-0으로 비겼다.

꿈같은 데뷔전을 치른 정상빈은 24일 구단을 통해 “뭘 기회를 주신 박건

하 감독님과 코치진에 감사하다. K리그 최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데뷔전을 치러 기분이 좋다. 하지만 팀이 승리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교재로 내 이름이 붙었을 때 놀랐다. 투입되기 전에는 긴장되고 설렘. 감독님이 자신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상대 공을 가로채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데뷔전을 돌아봤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정상빈은 “골 기회가 왔는데 수비수가 먼저 걷어낸 장면이 두고두고 아쉽다.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 떠

올랐다”면서 “여유만 찾았다면 골 욕심을 내봐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정상빈의 롤 모델은 프랑스의 축구 천재 음바페다.

그는 “음바페도 18세 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뽑아냈다. 저도 ACL에서 데뷔골을 넣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상빈은 마지막으로 “아직 어린 선수라 미덥지 못할 수 있지만, 믿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겠다. 수원 유스의 자부심을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 삼성 고교생 신인 정상빈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사진=수원 삼성 제공)

이승우 ‘8분’ 활약 팀은 무승부...3경기 연속 교체출전

후반 42분 투입돼 추가시간까지 8분 뛰어



벨기에 주필리리고 신트트라위던의 공격수 이승우(22)가 3경기 연속 교체로 출전했지만, 팀은 무승부에 그쳤다.

신트트라위던은 24일(한국시간) 벨기에 덴 드리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0~2021시즌 정규리그 13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과 2-2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최근 2경기 무승(1무1패)인 신트트라위던은 승점 10점으로 18개 팀 중 16위에 처했다. 상대팀 리버풀(승점 19)은 8위다.

뉴스스

벤투호 조현우 코로나 재검사서 ‘음성’...전세기 귀국

황인범 등 나머지 4명 또 양성...스태프 1명 추가 감염



한국 축구대표팀의 오스트리아 원정 2연전에 참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던 골키퍼 조현우(울산)가 재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9시 귀국 전 전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조현우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

다.

프 1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스태프 확진자는 총 4명으로 선수 7명을 더해 벤투호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선수 중에 유일하게 음성이 나온 조현우는 구단과 협의해 울산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이동하지 않고 25일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하는 대표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했다.

대표팀 전세기에는 조현우, 이동준, 김문환, 나상호와 스태프 그리고 밀집 접촉자가 탑승한다. 이들은 26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세기는 협회의 공식 파트너사인 아시아항공 보잉777이며, 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소속팀의 복귀 요청을 받은 황인범은 이번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고 향방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앞서 국내로 복귀한 선수 및 스태프 전원 귀국 후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로하스? 알칸타라?’ 올 시즌 MVP는?...30일 KBO 시상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최소 인원만으로 진행

2020년 KBO리그 최고의 별은 누가 될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오후 2시 임피리얼 펠리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 신한은행 쏘 KBO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상이 공개되는 자리다.

KBO는 정규시즌 종료 다음날인 11월 1일 하루 동안 MVP와 신인상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에는 2020 KBO리그를 담당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의 취재기자 112명이 참여했다.

KBO MVP는 특정 후보 없이 규정 이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우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가 대상이 됐다.

신인상 후보는 KBO 표창규정 제



7조 KBO 신인상 자격 요건에 따라 2020년 입단했거나 처음 등록된 선수를 비롯해 올 시즌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2015년 이후 입단 및 등록 기준)의 선수 가운데 누적 타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외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었던 선수는 신인상 후보에서 제외됐다.

MVP의 경우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투표인단 자율로 순위를 정해 투표했다.

개인별 득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MVP와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위 표를 더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프로농구 삼성, 1순위로 차민석 지명...고졸 최초 1순위

1순위 차민석·14순위 조성호...드래프트 최초 고졸 2명



1순위 이상인 서울삼성 감독이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0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제물포고 차민석을 지명할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전체 1순위로 ‘고교생’ 차민석(19·제물포고)을 선택하며 드래프트 최초로 고졸 1순위 선수가 탄생했다.

삼성 2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0 KBL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선수 48명 가운데 전체 1순위로 200cm 장신 포워드 차민석을 지명했다.

삼성은 지난 16일 신인 드래프트 순위 추첨 행사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었다. 그동안 드래프트 순번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던 삼성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순위 신인 선수 선발 권리를 가졌다.

2000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삼성의 부름을 받았던 현 이규섭 코치 이후 처음이다.

이 코치는 2000~2001시즌 신인상을 거머쥐고, 삼성의 두 차례 우승에 기여했다.

삼성은 차민석의 공격력을 높이 평가하며 즉시 전력보단 미래를 보고 전체 1순위로 고교생 차민석을 뽑았다.

차민석은 고등학교 2학년에 출전한 5개 대회(24경기)에서 평균 26.2점, 12.8리바운드, 4.5어시스트, 2.3볼록슛을 기록했다.

제물포고 졸업 예정 선수인 차민석은 고졸 최초 1순위는 영예도 안됐다. 이전에 가장 높은 순위로 지명된 고졸 참가자는 지난 2015년 전체 3

순위로 전주 KCC에 입단한 송교창과 2018년 3순위로 울산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은 서명진이었다.

지난해엔 김형민이 전체 5순위로 서울 SK에 입단했다.

2005년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서울 SK의 지명을 받은 한상웅도 고졸 출신이지만, 졸업 이후였고, 교포라는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전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부산 KT는 연세대 가드 박지현(22·190.8cm)을 지명했다.

박지현은 올해 대학 U-리그 1차 대회에서 연세대 우승을 이끌며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박지현은 동생인 여자프로농구(WKBL) 아산 우리은행의 주전 가드 박지현(20)과 함께 프로농구 최초의 동반 1순위 지명 남매로 관심을 모았으나, 아쉽게 2순위로 무산됐다.

박지현은 2018년 여자농구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우리은행에 입단했다.

3순위는 울산 현대모비스는 고려대 가드 이우석(21·196.2cm)을 지명했다.

대학 출신의 장신 가드 이우석은 대학 U-리그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트라이아웃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현대모비스가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전체 1, 2순위인 차민석과 박지현은 12월5일부터 1군 무대에 나설 수 있다.

김미희기자

사상 첫 비치핸드볼, 국가대표 10명 선발

내년 4월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가

대한핸드볼협회가 사상 처음으로 비치핸드볼 성인 남자국가대표 선수 10명을 선발했다.

24일 대한핸드볼협회에 따르면 21일 진행된 공개 테스트에 핸드볼 선수 출신 4명, 스포츠클럽 출신 1명, 현역 핸드볼 선수 20명 등 대학생 25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핸드볼 관련 기초 신체 능

력과 기술, 비치핸드볼 관련 규칙 및 규정 이해도를 점검받았고, 이중 10명이 한국 최초 남자 비치핸드볼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내년 4월2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6회 산야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산야아시아비치대회는 당초 이달 6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

김민정기자